

한동훈의 '아름다운 복수'를 기대한다

태평로

황대진

논설위원



산하다. 아예 행정부 밖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때 한 장관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 장애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를 지켜본 인사는 “한 달 동안 죽만 간신히 먹었다. 식사를 못 하니 약속을 잡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시련을 견디고 한 장관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자신을 못살게 굴던 법무부의 수장이 됐다. 잠신한 이미지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강직함, 반듯한 언행이 더해져 대중적 지지까지 얻었다. 이

정치 입문 압박한 한 장관
그를 좌천시키고 못살게 군
사람들과 다시 부딪칠 운명
그들과 다르다는 것 보여줘야 성공

재명 민주당 대표에 버금가는 차기 주자로 성장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된다.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정치 입문은 멀지 않은 듯하다. 원

하든 원치 않는 정치권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본인도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한 장관이 정치를 시작하면 자신을 압박했던 사람들과 다시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복수 혈전’을 준비 중이다. 옛 법무부의 조국·추미애 전 장관이 모두 총선 출마 태세다. 한 장관과 채널A 기자의 허위 녹취록을 KBS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검사장도 “민주당 후보로 전남 순천 출마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조국 수사

를 방해하고 울산 선거 개입 수사를 문건의 의혹을 받는 이성운 전 서울지검장도 고향 전북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지난달 출마기념회까지 열었다. 문 전 대통령은 그의 책을 소개하며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복수(福壽·오래 살며 복을 누림)를 꿈꾼다”고 썼다. 쓰면서 또 다른 의미의 복수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 입문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복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복수가 얼마나 추하고 적나라했는지 온 국민이 안다.

한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오면 검사 출신에 윤석열 대통령 직제라는 점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을 것이다. 한 장관도 시비에 밝고 싸움을 피하지 않는 성격이다. 하지만 그들과 똑같이 싸우면 수많은 정치인 중 하나가 될 뿐이다. 국민은 한 장관이 앞선 이들과 다른 점을 보여줄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치는 복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문 정권이 실패한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 원한이 있는 상대라도 어떻게든 설득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다. 윤 대통령도 잘 해내지 못한 일이다. 한 장관은 자신이 겪은 시련에 대해 “저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하다”고 했다. 대통령들도 이루지 못한 ‘아름다운 복수’를 한 장관은 해낼 수 있을까.

김준의 맛과 성 1609

고성 대진항 망챙이탕

대관령 휴게소에서 반팔 차림 젊은이를 만났다. 동해 최북단 고성에 이르니 영상 18도다. 겨울 날씨가 이래도 되나 싶었다. 여행하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부들은 울상이다. 곰치, 도치, 도루묵, 양미리 등 겨울에 잡혀야 할 바닷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주문진 한 식당에서 겨울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곰치국이 1인분에 1만8000원이다. 곰치국이 너무 비싸다고 하니, 지역 주민이 망챙이탕을 추천했다.

해 긴 그물을 내려서 걸어서 잡는다. 이를 자망 혹은 걸그물이라 한다. 망챙이는 머리에 갓을 찢고 정승 고기과 대접을 받고, 제사상에도 올랐다고 한다.

고성군 대진항에서 망챙이탕을 만났다.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어항으로 고성 통일전망대와 지적이다. 서해에 웅진 백령도가 있다면 동해는 고성 대진항이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명태, 정어리, 청어 등 어장이 좋았지만, 속속나아 웃 거진처럼 개발되지 못했다. 또 6·25 전쟁 이후 1960년대까지 어선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대진항 어선마저 거진항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1960년대에 이르러 방파제와 표지 등대가 세워지고, 1971년 12월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었다. 이제 명태 대신에 대구가 잡히고, 피문어



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번 겨울에는 식객들 입맛을 사로잡았던 곰치, 도루묵, 양미리도 많이 잡히지 않고 있다. 망챙이는 살이 단단해 강장할 때 낚기도 한다. 탕은 곰치, 채소 등을 넣고 얼얼하게 고춧가루를 듬뿍 넣어 끓인다. 강원도 겨울 여행 때 선택하는 음식은 곰치국이나 심통이일 가능성이 크다. 도루묵이나 양미리를 술안주로 선택하기도 한다. 겨울철 시원한 국물의 탕은 명태에서 곰치로, 곰치에서 고무겨갱이로 대를 잇고 있다. 그런데 어민들은 망챙이도 귀해졌다며 걱정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說

민주당 전 대표는 구속, 현 대표 영장은 기각, 대체 무슨 기준인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현대화를 폐기하고, 차명 현대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점 등을 감안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유 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던 사람이다. 이 대표 혐의 중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 교사’도 있었다. 유 판사는 이 ‘위증 교사’를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확보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위증 교사는 대표적인 증거 인멸이다. 그런 사람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속됐는데 정작 그 일의 핵심인 사람만 구속되지 않은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유 판사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하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회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대표 측근 의원이 개입한 뒤 그 진술을 번복했다. 이는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한다. 이 대표는 대표직과 의원직도 방탄에 이용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나. 결국 정치적인 부담의 차이 때문에 전직 대표는 구속하고, 현직 대표 영장은 기각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이면 판사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사람들이 이미 구속됐고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그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이 대표 관련 사건도 구속된 사람만 21명이다. 21명 거의 대부분이 이 대표를 위해, 혹은 이 대표 때문에 한 일로 구속됐다. 백현동 비리는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고, 불법 대북 송금도 이 대표를 위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유 판사는 이 대표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 영장만 기각했다. 크게 보아 같은 일로 21명이

이제 민주당은 전직 대표는 구속되고 현직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이런 초유의 사태에도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돈 봉투와 관련한 통화 녹음이 다 확보됐는데도 관련자들은 “조작”, “탄압”이라며 오히려 공세를 퍼왔고 송 전 대표도 “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과 관련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단식까지 했다. 민주당은 잘못이 드러나면 거짓 주장을 하고 검찰에 역공을 퍼붓는 게 일상이 됐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조태용 신임 원장, 국정원 내분만이라도 끝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정보원장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기용한 조 실장을 8개월 만에 국정원장으로 이동시킨 것은 국정원의 내분과 낮은 정보력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대통령 재가를 거친 1급 간부들에 대한 보직 인사를 1주일 만에 반복해야 할 정도로 암투가 심각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당시 원장, 국정원 간부들 간의 반목이 그치지 않아 지난달 국정원장과 1·2차장이 모두 경질됐다.

국정원 내분과 잡음은 언제나 인사 문제 때문이었다. 조 신임 원장에게는 북한에 대처하는 것이 큰 책무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국정원 내분부터 완전히 잠재워야 한다. 인사를 담당하는 기초실장을 무조건 외부 인물로 임명할 것이 아니라 내부 사정과 역사를 잘 아는 사람으로 임명해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하고, 북의 실제 도발 가능성이 높은 데다, 여러 적성 국가의 해킹이 하루에 수십만 건씩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런 내분에 빠진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국정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결과도 전혀 예측하지 못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참패한 데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24년 세계 대전망”에서 내년 국제사회의 특징을 ‘다극화된 무질서’로 꼽았다. 미국의 단일 패권이 끝나가면서 세계는 더 많은 분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예측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 예상된다. 올 하반기 들어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번에 지명된 조 국정원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

‘일단 거짓말부터’李대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1월 12일 밤 서울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에 여러 차례 급제동으로 위협하고 이런 보복 운전을 쫓아가면서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는 최초 경찰 조사 때 “운전은 했지만 급제동은 안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다 한 달 뒤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해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 영수증 등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거짓말로 본 것이다.

친원 정도”라고 했다. 알고 보니 회의 중 거래 횟수만 수백 번이었다. 최강욱 전 의원은 화상회의 도중 저속한 성적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찔찔이’ 거짓말부터 했다. 그 역시 처벌회 소속이다.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김용 전 민주당구원 부원장도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가짜 알리바이까지 제시했다.

사람이 감정에 치우쳐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대변인은 반성은커녕 거짓말부터 했다. 사건 당시 그는 이재명 대선 캠프 선대위 대변인이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거짓말부터 하고 친이재명계 모임 ‘처벌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헬러원 참사를 다룬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자 “몇

이 대표부터 각종 거짓말 의혹에 휩싸여 있다. TV토론에서 거짓말을 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대법원이 판결을 바꿔주지 않았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차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함께 해외 출장을 가 골프 치고 마주 앉아 식사하는 사진까지 나왔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대북 송금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데도 “검찰의 조작 소실”이라고 했다.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허위 사실 공표, 위증 교사 등 총 7개 사건의 10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 돈과 거짓말 관련이다.

민주당 쌍특검은 집요한 총선 공작... 탄핵의 굿판 재현하고 싶은가? 뉴데일리 newdaily.co.kr

'김건희 특검법'은 이재명과 '국힘 탄핵변질파'의 전술적 협업 수작
'윤석열 탄핵' 협박하며 '공천 보장' 요구하는 추잡한 속셈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하고, 한동훈은 걸기로 정면 대결하라

■ 이재명과 손잡는 [그들]의 장난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대표하는 자유 진영과 체제 변혁 세력의 일대 사생결단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자유 진영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전략 전술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은 누구인가? 자유 진영의 명백한 주적(主敵)은 물론 이재명 주류다.

그러나 상황은 간단치 않다. 자유 진영 내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분당 끈들이 있는 까닭이다. [이준석 + 그의 후원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무렵부터 지금까지 줄곧 텃세를 부렸고, 그를 갈들러 했다. 그가 호락호락 자기들 뜻대로 해주지 않자, [그들]은 내부 총질로 [윤석열 힘 빼기]를 했다. ★강남 좌파★기회주의 중간파★전철후 해바라기★탄핵 부역자, [그들]의 장난질이 다.

■ 김건희 특검법과 [그들]의 공천 보장 협박

문제는 [그들]이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과 묘한 전술적 협업(協業)을 할 능력이 보인다는 점이다. 어떻게?

이재명은 자신의 방탄을 위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행사해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미 끝난 문제들, 제차 꺼내 쓰려는 수작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건(件)은 다시 국회로 돌아간다. 이번 민주당 표만으론 안된다. 국민의힘 일부가 가세해야만 통과된다.

국민의힘 내부에 터 잡은 [그들]은 이걸 버리고 노린다. 이걸 용정거리로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당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를 공천에서 탈락시키지 말라”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도 남을 자들이다.

■ 이재명과 [그들]의 공동 표적은 윤석열

이처럼 이재명과 [그들]은, 윤석열을 한껏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탄핵]을 점점으로 서로 활용할 것이다. 공동의 표적 윤석열을 타격하기 위해.

교활한 자들끼리의 전술적 제휴! 추하고 치사하다.

[그들]의 수작은 이미 시작했다. ★수평적 당정관계 ★아바타론 ★한동훈을 아까자 운운 어찌고 하며.

웃긴다.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한동훈을 아꼈다고? 재승박덕(才勝薄德)한 [그들]이다.

■ [그들]이 말하는 '정치 경험은 아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사(戰士)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른바 [정치 경험]이란 것이 만약 [적당한 우회]를 의미한다면, 그 정면대로 나가야 한다. ★울골고 ★의롭고 ★결기(決氣) 있게 ★정도(正道)로 두뚝두뚝 걸어야 한다.

눈에 같이 들어온대도, 변해선 안 될 대원칙이라는 게 있다. 이는 인간적 포용성과 충돌하는 게 아니다. [기회주의 탄핵 가담 파]는 바로 그 대원칙을 저버렸다.

큰 원칙을 지키는 의연한 기개(氣節)를 보여야만, 어중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일부도 이쪽으로 끌린다. 그런 후에 유연한 [정책]으로 중도에 부응하면 된다.

이쪽의 영혼의 정체성을 없애야만 [중도화장]이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종류의 정권에 영합하는 알박한 생존법 외엔 [일관된 자아(自我)]도 없는 자들을 누가 왜 따를 것인가?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 칼럼 더보기 ▼

	박근혜 탄핵 1등공신은 가짜뉴스-서울고법 연립뉴스-패소 판결 보니		'뉴 국힘'은 한동훈이 이끌까- '바른미래'계 탄핵파는 기회주의의 꿈수 그만 부러라!
	김기현 체제 갔다-이재명-한동훈 체제 나옴		이낙연, 이재명과 감마사라-아수리관에서 팔리 때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12월 18일 게재 되었습니다.